



▲ 한사랑학교 성체혐교육, 10월



▲ 어린이집 성교육인형극 공연, 10월



▲ 곤지암지역 성폭력예방캠페인, 10월



▲ 제11기성교육전문강사 수료생, 12월

성폭력 상담소

- 여기는 상담실입니다.
- 2012년 상담통계
- 왜 홍보활동을 하는가?
-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캠페인에 참여하고...
- 성교육 전문강사 교육을 받고...
- 성교육 수업 중...
- 장애인 성교육 왜 필요한가?
- 상담소 활동

여기는 상담실입니다.



내담자 저는 초등학교 3학년때 엄마아빠 이혼하여 아빠와 여동생(초1년)이랑 살면서 모든 집안일을 했어요. 엄마랑 살고 싶었지만 엄마가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빠랑 살게 되었고, 엄마아빠 이혼은 아빠는 거의 매일 엄마를 때리고 욕하고 칼로 찔러 죽인다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부모 이혼 후 1년은 게임에 중독되어 잠도 자지않고 먹는 것도 컵라면 정도 먹고 동생은 어떤 모습인지 전혀 기억이 없을 정도 폐인같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4학년 어느날 밤 아빠가 옷을 다 벗고“너도 얘기 가져야 하니 미리 연습 해야” 한다면서 “너가 태어난 것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했어”하면서 내 옷을 벗기고 아빠 성기를 그기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때 완강히 거부하고 ‘싫다’고 하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아빠 성폭력은 중학교 2학년까지 했으며, 가슴, 성기 만지고 빨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고, ‘너는 왜 털이 안나냐? 막냐?’ 등 싫다고 거절하면 ‘밑에 보여주면 만원 줄게’라고 했어요. 또한 아빠는 ‘미친년, 돌아이년, 씨발년, 집 나가 죽으라 니년은 죽지도 않고 왜 사냐?’ 라는 온갖 욕설과 주�회는 평균 집에 비치된 2개의 몽둥이로 온 몸을 무조건 맞고 자랐어요. 중2학년 때는 죽거나 가출을 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살았고, 동생 때문에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작년 9월 일요일에 여동생이 나와 같이 아빠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정말 충격이었고 동생은 어리고 몸도 약해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아빠는 사람같지 않아요. 더 이상 지옥같은 생활에서 이렇게 참고 살수 없었어요.

상담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주어서 고맙고 대단해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아픔을 혼자 감당하느라 많이 아팠을 텐데. 그리고 동생까지 챙기면서 참 열심히 살아왔네요. 아빠의 심한 폭력에도 사춘기를 겪으면서 지옥같은 집에서 탈출하고 싶었으나 오로지 동생을 생각하고 살았다는 말에 뭐라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프고, 동생을 챙기는 마음 감동적이라 저 또한 눈물이나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결정 한 것도 동생이 아빠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결심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이 엄청난 고통을 혼자 감당 해왔지만 **씨** 여성회는 지금부터 함께 할 것입니다.

** 이후 지원 내용(시간 순서로 정리) **

정부(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모든 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상담소가 그 역할을 곁에서 함께 상담, 지원, 서비스 연계 등 하였습니다.

- 피해자(자매) : 8월 경기원스톱(아주대 병원 내)성폭력 신고(동행)와 변호사지원 → 신고 후 동생(쉼터 입소), 언니(아동보호기관 입소) → 언니 2주 후 아동보호기관 퇴소 → 행정업무지원(수급대상가정으로 수급비 입금을 친부에서 내담자로 변경) → 생활비지원(성남지방검찰청 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연계) → 비밀전학 절차 지원 → 위탁가정 절차 지원
- 가해자(친부) : 8월 경기경찰청(성폭력전담수사관)수사 → 8월말 친부 긴급체포·구속수사 → 10월 중순 성남검찰청 기소 → 10월중순 성남법원 1차재판 → 11월 2차재판(본 상담원 피해자측 증인출석) → 12월 3차재판 재판참관→2013년 1월 4차재판(예정)

힘들때 전화하세요. 031)797-7032

* 상담은 무료입니다.



2012년 상담통계 현황(1월~12월)

1. 상담 통계(1월-12월)

1) 상담 내용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체상담 840건 중 성폭력은 495(59%)건, 기타상담은 345(41%)건이다. 성폭력 495건 중 피해유형은 강간135명(27%)건, 성추행134명(27%), 성상담222명(45%) 상담통계를 나타내고 있다.

구분	계	성폭력상담	피해유형				
			강간	성추행	스토킹	사이버	성상담
계	840	495	135	134	2	2	222

2) 성폭력피해자 · 가해자 연령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495명 중 성폭력피해자, 가해자 연령은 다음과 같은 통계를 나타내고 있다. 피해자는 7-13세미만 54명(11%), 13세-19세미만 361명(73%), 19-60세미만 35명(7%), 미파악 42명(8%)이다. 가해자 연령은 13-19세미만 223명(45%), 13-19세미만 167명(34%), 미파악 102명(21%)이다.

계	피해자 연령						계	가해자 연령					
	7세 미만	7-13세 미만	13-19세 미만	19-60세 미만	60세 이상	미파악		7세 미만	7-13세 미만	13-19세 미만	19-60세 미만	60세 이상	미파악
495	0	54	361	35	3	42	495	0	0	223	167	3	102

3) 성폭력 가해자 유형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495건 중 성폭력 가해자 유형은 다음과 같은 통계를 나타내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는 부모와 가족, 혈족은 62명(13%), 애인 등 아는 사람은 143명(29%), 채팅 등 모르는 사람 70명(14%), 기타 등 미파악 220명(44%)이다.

계	(의) 부모 형제	4촌 이내 혈족	배우자	애인	직장 관계자	동네 사람	동급생 선후배	종교인	서비스 제공자	채팅 상대자	모르는 사람	기타
495	48	3	11	7	1	29	105	1	24	28	18	220

4) 피해자 연계 및 지원 건수 : 138건

- * 의료지원 : 병원연계(18건), 병원비지원(약 540만원), 동행 등/
- * 법률지원 - 변호사지원(11명)
- * 수사지원 - 경찰서, 상담소, 검찰청 등 동행(8회) 법정참관(5회)
- * 생활비지원 - 성남지검 소속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지원(약800만원)
- * 기타 연계 - 관공서, 시설, 학교, 고용지원센터 연계

위와 같이 2012년 한 해동안 성폭력과 기타상당은 전년도 대비 약 10% 증가하여 전체 840건이었다. 전체 건수 중 성폭력 상담은 전화, 내방, 방문을 통한 내담자 지원이 495회였으며, 성폭력 피해유형, 피해자와 가해자 연령, 성폭력가해자 유형을 분석하여 한 해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성폭력 피해 유형은 성상담, 강간과 성추행 피해로 본 상담소에 지속적인 상담, 수사지원에 따른 경찰서 검찰청, 법원 동행과 자료제출, 법률지원, 의료기관 연계, 병원비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했다. 피해 유형의 성상담은 223건 45%는 학교를 방문하여 청소년(장애)의 성고민, 올바른 성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성정체성을 갖게 하였다. 강간과 성추행 피해가 273건 55%로 피해 대상 83%가 청소년으로 또래문제, 학교문제, 가정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둘째, 우리지역 성폭력피해자 연령과 가해자 연령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표를 통해 성폭력의 저연령화를 뚜렷이 볼 수 있다. 19세 미만 피해자는 415명(73%)이며, 98%이상 여학생으로 대부분 여중생이다. 여중생에 대한 2인이상 집단성폭력 피해가 도척면, 오폭읍과 장지동에서 발생하였다. 피해자 심리적인 증상은 자살충동이 가장 높았으며, 내 몸이 더럽혀졌고, 피해 사실이 소문날까 가장 두려워서 대부분 피해자는 지역을 떠나고자 했다.

성폭력 가해자를 보면 19세 미만 청소년이 223명 45%, 성인은 167명 34%를 차지하고 있다. 가해자 대부분 중학생으로 '술을 마셔서, 호기심에, 친구가 시켜서' 등 이유로 성범죄를 집단하며, 성인식의 왜곡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 성범죄 청소년은 학교문제(강제전학, 유예, 무단결석, 부적응 등), 가출 등 청소년만의 문제로 볼 수 없는 최근 우리 사회 현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성폭력 가해자 유형에서 기타(222명)를 제외한 275명이 아는 사람(가족, 친인척, 애인, 동급생 등)이 75%를 차지하며, 모르는 사람은 25%를 차지한다. 위 표에서와 같이 부모형제가 48명, 동급생 선후배105명을 살펴보면, 친(의)부에 의한 성폭력은 몇 년간 지속적인 성폭력이 발생되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때 들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위에서 계속 언급해듯이 청소년 성범죄로 동급생, 선후배간 집단 성폭력을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청소년 성의식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왜곡된 성의식은 야동(포르노)에서 성지식을 얻고, 그것을 실천 할 가장 취약한 후배여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상담소는 한 명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서비스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성폭력 피해의 상처는 평생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에 비해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여 더 많은 지원과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도 지난 몇 년 증가하는 청소년 성범죄로 이들 대상 성(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왜곡된 성의식을 인지치료로 성정체성을 가진 주체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있다. 본 상담소 또한 2008년부터 성범죄 청소년 대상 상담,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또한 피해(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를 갖고 있는 성정체성이 낮은 청소년으로 처벌(특히 학교에서 강제전학 등)이 아닌 교육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피해자, 가해자를 만나면서 성폭력예방이 가장 중요함을 다시금 갖게 되었다. 그래서 성폭력예방을 위한 성교육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예산지원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왜 홍보활동을 하는가?

〈성폭력예방과 피해자 적극적인 지원〉

류 복 연 (성폭력상담소 소장)

씨얼여성회는 성폭력없는 광주 행복한 시민 함께 잘사는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에 아동과 장애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사건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성폭력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2000년 초에 우리시에 피해 상담으로 본 상담소에 상담한 건수가 년 간 50건이하에서 2012년 말 기준 약1,000건으로 200% 폭발적인 증가가 통계로 보여주고 있다. 상담건수 중 45%가 성폭력피해상담으로 분노, 우울증, 대인기피, 불면증 등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는 연령, 지역을 불문하고 대부분 소외계층이다. 특히 우리 지역은 도시 특성상 송정동, 경안동지역을 벗어나면 논, 밭, 산으로 집 밖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발생 장소로 올 해 피해사례를 보면, 송정동은 차안, 도척면은 집에서 차로 5분 거리 논둑의 차안, 오폭읍은 공동묘지부근에서 발생하였다. 물론 대부분의 성범죄 장소는 건물 안에서 발생되고 있다.

2012년 12월 현재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보면 우리시 성범죄로 11명이 우리 이웃으로 살고 있으며, 그 중 6명이 오폭읍에 살고 있다.

그리고 신상공개 성폭력가해자 연령은 20대에서 60대로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20대미만 여학생과 10대 이하 여아들이다. 최근 발생하는 심각한 성범죄를 2012년 본 상담소 사례를 보면, 10대 청소년이 집단으로 한다는 것이다. 도척면은 6명이 한 명의 여중생, 오폭읍은 3명이 1명 여중생, 장지동은 7명이 1명 여중생을 운간하고 '놀이로, 심심해서, 술을 마셔서, 친구가 소개해줘서' 등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피해자 모두는 심각한 피해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요청못했고, 그들이 소문내면서 피해사실이 들어나는 이중 삼중의 피해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상담소는 2011년에 한 해동안 지역 주민 100명에게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본 상담소 이용'에 대한 설문 결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85%이상 알고 있는 반면 지역에 성폭력 상담소가 있으며, 알고 있다고 답한 15%의 조사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에 2012년은 본 상담소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지역주민이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에 대해 빠르고 쉽게 서비스지원을 받도록 다음과 같이 4단계 계획에 따른 홍보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첫째, 활동가, 회원, 자원봉사자와 함께 8곳 읍면동 찾아가는 홍보, 현수막 게시 매월 2회는 지역 주민을 찾아가는 홍보활동에 현수막 게시, 안내장과 홍보물 배포, 전시하였다.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였으며, 매월 1회는 각 지역(광남동 입구, 경안동시장부근, 곤지암

읍 전지역, 도척면주민센터 앞, 송정동 구광주시청 앞, 오포읍도서관, 초월읍면사무소 앞, 퇴촌면 신협앞)과 매월 실시하는 구광주시청 내 알뜰장터에서도 하였다. 지역 주민들은 지난 몇 년간 아동성폭력피해에 대한 언론 영향으로 성폭력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으며, 손녀 손잡고 나온 할머니의 적극적인 호응에서 알 수 있었다.

둘째, 지역청소년·주민·유관단체와 거리 캠페인 홍보활동

각 지역에서 약 800명 청소년, 지역주민, 유관단체와 거리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안내장과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성폭력예방'에 함께 했다. 송정동과 경안동은 시내 전지역을 7월, 10월, 11월에 약250명, 곤지암읍은 시내 전지역을 10월에 약100명, 도척면은 도척면사무소앞, 시내캠페인 8월,10월에 약 150명, 장지동은 10월에 약60명, 초월읍은 약40명, 퇴촌면은 5월, 7월에 약150 참여하여 성폭력예방 홍보를 하였다.

셋째, 광주시 지원을 받은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6곳 지역 주민과, 마을리장 대상 홍보활동

본 상담소는 성폭력없는 광주,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을 가꾸고자 6곳 읍면동마을(광남동, 도척면, 오포읍, 중부면, 초월면, 퇴촌면)마을리(통)장과 지역 청소년을 찾아가는 교육과 홍보활동에 약1,000명 참여로 진행하였다. 각 마을 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특히 마을리(통)장이 마을 전 지역과 주민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책임의식을 갖고, 안전한 마을이 되도록 당부하였다. 그리고 오포읍이 성범죄자가 가장 많이 살고 있어 성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위와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홍보활동을 해 줄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본 상담소 또한 지속적인 홍보로 성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넷째, 경기도 지원을 받은 경기1366네트네트워크와 우리지역 7곳지구대파출소 경찰 대상 홍보활동

경기1366은 경기도 내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지원을 24시간 체제하에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해 수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 살해, 가정폭력 피해자 신고로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폭력, 감금되는 사태는 초동수사미흡에 따른 결과였다. 그래서 경기도는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자 경기1366과 본 상담소가 11월 일주일간 7곳 지구대파출소 경찰 대상 홍보활동에 약200명이 참여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5대 강력범죄 중에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9월 광주경찰서와 MOU체결식을 가졌다.

따라서 본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은 성차별로 기인하며 이는 가부장제사회에서 왜곡된 성인식이 원인이라고 본다. 그래서 성평등한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성인식 전환 교육과 성폭력예방을 위한 캠페인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각 지역 청소년과 지역 주민, 유관단체 등 민·관이 연계하여 진행하되 올바른 성의식을 갖고 우리 지역은 우리가 책임지고, 배려하며, 성평등한 성폭력 없는 지역문화를 만들도록 할 것이다.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캠페인에 참여하고..

모 속 영 (사회복지실습생)

충격적인 아동 성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시
도 때도 없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때에 마침
사회복지실습을 써올여성회라는 단체에서 하
게 되었다. 실습 첫날부터 성교육 수업에 보조
강사로 동행하여 폭우 속을 뚫고 곤지암에 있
는 동현학교라는 장애학교에서 성교육 및 성
폭력예방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지적장애
아동들로 나이는 초5,6학년이지만 정신연령
이 초1,2학년 정도 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라
이들에게 무슨 성교육이 필요 있나 싶었지만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관심과 반응 그리고 강
사님의 교육 내용을 들으며 '이들에게 이런
교육이 필요한건가?' 하는 우려를 떨치게 되었
다. 어린 아이들도 성에 관심이 있고 지적장애
인들의 성폭력에 관한 뉴스도 가슴 아프게 많
이 보도되고 있는 요즘 이러한 강의를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위협으로부터 예방하는 방법
을 교육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
었다. '성(性)'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교육 할지도 궁금했는데 어릴 때와 청소년기
모습의 인형과 교육 비디오 등을 통해 성장발
육 모습과 생식기의 변화 등을 아이들이 부끄
럽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교육이
좋았다.

써올여성회는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
기 위해 홍보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실습하는 동안 몇 번 주중에 거리캠페인에 참
여하게 되었다. 이곳에 실습을 하였던 실습생
들이 봉사자로 함께 하여서 처음 해보는 거리
캠페인에 어색함 없이 참여하였다. 홍보물과
성폭력예방 안내장을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나
눠주고 성폭력예방과 성교육에 관한 교육 자

료를 전시하는 캠페인이었다. 요즘 특히 심각
해지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
고 예방법 안내를 하고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내가 당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유인물
을 나눠주면 모두들 관심을 갖고 받아줄 것이
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
아서 당황하였다.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
도 아닌데 호객 행위 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사
람들, 딸아이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홍보자료를
거절하는 엄마, 교육이 꼭 필요한 젊은 여
성들도 더러 경계심을 갖고 무관심하게 지나
치는 모습에서 나오는 무관한 일이라는 안일
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안타깝다는 생각
이 들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주기적으로 캠페
인을 하는 써올여성회가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 번은 오포도서관 앞에서 오포파출소
와 연계하여 성폭력예방 거리홍보 활동에 참
여하였다. 파출소 소장, 경찰분들이 나오셔서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홍보활동을 함께
하였다.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교육 자료를 전
시하고 자칫 지루해 질수도 있기 때문에 주사
위 던지기 게임을 하면서 성교육과 연결시키
고 참여자에게는 광주시청 여성가족과에서 지
원해준 홍보물품도 나눠 주었다. 지역주민들
과 학부모님들이 아동들과 함께 관심을 갖고
관람을 하고 궁금해 하는 것들은 소장님과 국
장님이 열심히 설명하여 알려 주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미있는
캠페인을 하였다. 늘 똑같은 방법이 아닌 새로
운 시도로 관심을 갖게 하기위해 연구도 많이
해야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다.

재미있던 거리캠페인은 초월시립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체험학습으로 함께 한 활동이었다. 한 반은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란 구호를 외치면서 성폭력예방 홍보물을 나눠주며 관심을 갖게 하고, 또 한 반은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직접 만든 구호판과 ‘성폭력을 예방합시다’란 어깨띠를 두르고 동네를 돌면서 홍보물을 나눠주는 캠페인이었다. 어린이들이 직접구호를 외치며 홍보물을 나눠주니까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는 것을 보니 어린이들에게는 직접적인 교육효과와 안전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어른들도 무관심 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같았다.

성교육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의를 통한 성교육이 다소 어려운 유아들에게는 인형극단원 모임에서 인형극을 통하여 지역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한다. 어린 아동들은 인형도 생명이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해서인지 인형들의 대화를 통해 성폭력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주인공 인형이 유괴 상황이나 성폭력 위험에 처하면 몰입하여 소리지르고, 위험상황을 알려주고 어떠한 방법으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지 빠르게 이해하는 것 같았다. 유아들이나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인형극을 통한 교육이 재미도 있고 호응도도 높아서 이해시키기 좋은 효과적인 방법 같다.

실습하는 동안 여러 가지 교육이나 공연,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범죄자는 정해져 있는 것

이 아니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도 언제든 위험한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내 몸의 소중함을 알고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아직 새싹인 우리의 아이들이 아픈 기억과 상처 없이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어른들이 무한한 관심을 갖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분야는 단순하게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실습을 통하여 이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것이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되어졌다.

폭풍업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재능으로 많은 일들을 소화해 내시고 실습생들을 지도해주신 슈퍼바이저 김영숙 국장님과 남성들이 필요한 힘든 일들까지도 이른 아침부터 솔선해서 하시고 성교육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달려가서 강의하시고 또 거리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류복연 소장님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씨울여성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모숙영 실습생(오른쪽 첫 번째)오포도서관,10월18일



▲ 초월시립어린이집 성폭력예방홍보, 10월4일

내가 배우려 하는 이유? 나를 사랑하니깐

유선영 (제10기 성교육전문강사교육생)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

이 속담은 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새로움을 배우려 했던 저에게 잘 알고 지낸 지인께서 소개해주신 씨울여성회 그리고 '성교육 전문강사'교육에 첫 수업시간은 설렘과 흥분의 시간이었던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알팍한 지식의 벽을 무너뜨리는 교육임을 느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성(性)에 대한 지식은 초등학교 수준도 미치지 못함을 깨닫고 한 시간, 한 주가 지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은 놀라움과 사회에 대한 실망 그리고 법에 대한 분노가 복합적으로 다가오는 시간임을 틀림 없었습니다.

'성기문화'라는 새로운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지금까지 몰랐던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 문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한 교육기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양분된 문화이며 인류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성기문화는 정형화되고 고정적이며 생득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기문화라는 것은 특정 문화 공간에서 그 사회의 지배 문화가 고도의 작업과 의도화를 통해 세뇌된 것이며 바로 학

습된 결과임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문화가 청소년과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하며 성교육 강사로서 건전하고 책임감 있고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이 교육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관점이 예전과 달라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삶을 보다 풍성하게 채워가기 위해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게 더 넓고 많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공부한다면 그 과정이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씨울여성회를 통해 많은 지혜와 지식을 쌓을 때 가장 큰 수혜자는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임을 이는 광고에서 나왔던 문구가 지금 생각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공부한다”라는 기회를 주고 기회를 통해 지식을 얻게 해주신 씨울여성회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성인재 양성에 힘써 주시길 바라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 유선영교육생(왼쪽 첫번째)



▲ 유선영교육생(왼쪽 세번째)

‘여자는, 여자니까, 여자라서 하면 안돼, 하지마’

배 영 애 (제11기 성교육강사교육생)

우연한 기회에 주변의 권유로 성교육 강사 교육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성(性)이라는 말에 처음에는 선 듯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었다. 내가 성(性)을 교육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생기지 않았었다. 그런데 성교육 강사 교육을 받으면서 성(性)교육자로서 남성(남성성)과 여성(여성성)을 다시 생각 하게 되었다.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문제

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나의 일이며 내 가족 내 친지 바로 내 이웃의 일 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성폭력 하면 TV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나와는 아주 동떨어진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면서 보고 듣는 순간에는 ‘어머! 어쩔 저럴 수 있을까’ 하면서 내 일이 아니니까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씨울 여성회에서 진행하는 제11기 성교육 전문강사 교육을 받으면서 가정에서의 조기 성교육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공부하기를 참 잘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은 이 과정을 교육 받으면서 느낀 것은 나도 지금까지 내 안에 있는 성(性)에 대한 고정 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알팍한 지식으로 성(性)을 안다고 한 것이 부끄러워졌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성교육은 모든 이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학교에서도 성지식과 성(性)에 대한 관념을 확실하게 교육해야하며 유아기부터 조기성교육이 이루어져야 사회적으로도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기성세대의 성(性)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성성을 강요당하면서 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언제나 ‘여자는 여자니까 여자라서 하면 안돼, 하지마’ 로 살아왔기 때문에 언제나 피해자는 여자 여야만 했다.

앞으로의 성교육은 체계적인 교육으로 올바른 성가치관, 성적 주체성을 갖게 하고 성폭력, 성차별 없는 성평등한 문화 확산의 교육이 꼭 필요할 것이다. 성폭력에 있어 안타까운 것은 성폭력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성폭력’ 이라고 인지 못하거나, ‘성범죄’ 를 행하면서도 가부장제 사회 ‘남자’ 라는 이유로 허용해 온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어느새 ‘성범죄’ 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이 우리사회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치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위주의 사회분위기 보다 사회 전반적인 건강한 성문화, 성평등한 문화 정착은 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씨울 여성회 성교육 강사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배영애 성교육전문강사 수료 12월17일

성교육 체험관 교육을 받고나서...

‘첫 무슨 성교육이야 다 알고 있는데’

남 유 진 광남초 4학년

나는 오늘 3교시에 강당에서 성교육을 받았다.
 난 처음에는 사실 ‘첫 무슨 성교육이야 다 알고 있는데’라고 생각하였다.
 일단 난 강당에 가 수업을 하였다. 그런데 수업을 하는데 나의 첫 마음이 열렸다.
 난 너무 재미있어서 그 재미에 쪽 빠졌다. 우리는 1관에서 수업을 마치고 2관으로 갔다.
 이번에 진짜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하였다. 선생님은 정말 재미있게 수업을 만들어 주셨다.
 너무 재미있게 성교육 퀴즈를 해주셨다.
 정말 재미있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포스트잇에 써서 그림 나무에 붙였다.
 오늘 정말 많은 지식을 얻었다.
 그리고 난 여태까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내가 모르는게 이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된 것을,
 또 배워서 너무 기분이 좋다. 앞으로 성폭력에 대해 많이 조사하고 싶다.
 그리고 아주 만약 나를 성폭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지마세요”라고 해야겠다.

내 몸이 소중하다는 것

우 고 은 광남초 3학년

성교육 체험관 활동으로 내 몸이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다. 아기 인형도 안아보고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 과정도 알았다. 신기한 체험을 해서 기분이 좀 이상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성폭력에 대해 배웠다. 성폭력을 당했을 때 그 일을 부모님께 숨기지 않고 말하기와 성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기 등을 알았다. 그리고 친구가 울고 있을 때 힘을 내라고 말하면 친구도 기운을 더 얻을것도 배웠다. 그래서 나는 성폭력을 하지 않고 당하지도 않고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친구에게 좋은 말, 고운말을 하는 친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엄마는 정말 그런 느낌이었을까?

김 다 혜 광남초 4학년

성교육 체험관 활동을 하고 나에게도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웠으나 꼭 부모님께,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아무리 어른의 말이라도 거절도 할 수 있어야겠다고 느꼈다. 그리고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도 성폭력을 하고, 성폭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 임신부 체험은 정말 무거웠는데 엄마는 정말 그런 느낌이었을까? 그리고 우리 동생은 울음도 많은데 어렸을 때 엄마가 무지 힘들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시간을 통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꼈다. 그리고 성폭력을 당하거나 하면 우울증도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된다. 그래도 나는 그런 일이 생기면 꼭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배운대로 할 것이다. 실제로도 그렇게 될까? 노력해야지, 그리고 나는 정말 소중한니 내가 잘 지킬 것이다



▲ 임신부 체험, 광남초 10월
* 신생아 안아보기



▲ 임신부 체험, 광남초, 10월



▲ 신생아 안아보기, 광남초 10월



▲ 성폭력은 뭐야? 광남초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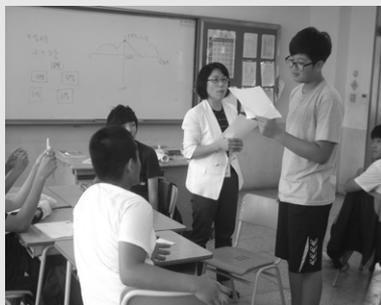


▲ OX퀴즈문제, 광남초 10월

성()하면 생각나는 단어와 느낌

광일중 3학년 남학생

- ♥성폭력 - 피해자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 한 사람을 파괴하는 잔인한 느낌,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아서 한 사람의 삶이 파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주혁
성폭력은 살인이다. 사람을 죽이는게 살인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 제훈
- ♥성교육 - 성교육은 꼭 필요한 것, 의무적으로 꼭 필요한 느낌,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성범죄를 예방했으면 좋겠다. ... 효진
- ♥데이트 - 순수한 사랑의 첫 시작이다. 설레이는 느낌, 외로운 사람에게 권해줘서 많은 순수한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 지원
- ♥Sex - Sex는 사랑의 과정이다. Sex를 말하거나 들으면 내가 걱정이된다. 사랑의 과정이지만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영욱
- ♥사랑 - 사랑은 신이 계시한 최고의 만남과 행복이다. 사랑을 말하거나 들으면 따뜻한 손길이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 영창
- ♥배려 - 배려는 서로 한 발씩 뒤로 물러서는, 서로 이해하는 것, 서로를 생각하는 느낌이 든다. 서로 서로 배려했으면 ... 관호
- ♥낙태 - 낙태는 잔인하다. 아무 죄책감 없이 살인하는 느낌, 낙태할 바에 처음부터 시작을 안했으면 ... 승우
- ♥임신 - 임신은 사랑의 결과물이라 생각한다. 임신을 말하거나 들으면 새로운 생명이 생겨 행복한 느낌이다. 그래서 나는 사랑의 결과물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완희



▲ 발표하는 주혁이. 광일중3학년



▲ 발표하는 영욱이. 광일중3

잠시만 외면해도 우리 아이들은...

이 명 규 (인덕학교 보건교사)

교통대란을 동반한 폭설로 겨울을 확실히 알리며 이렇게 2012년이 지나가네요.
씨올 여성회와 인연이 닿아 우리 아이들(지적장애) 성교육을 함께 한지 벌써 4년!
많이 고맙고 또 많이 든든하고....
우리 아이들을 대신하여 감사인사 전합니다.

지적장애 특성상 자기표현도 약하고 자기주장도 약하고....
반복 교육을 해도 눈에 보이는 향상이 적어 때론 무기력감도 느끼지만....
그래도 사랑스럽고, 그래도 사랑하여야 하는 아이들이지요.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많은 오해를 받고 그래서 많은 피해를 보는 현실 때문에 부모님들도 전
전긍긍하고 선생님들도 안타까워합니다.

특히 성폭력사건이 생기면 피해를 당하고도 억울한 경우가 많은 현실이어서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
서 씨올 여성회의 이 특별한 성교육이 더욱 의미있고 더 감사합니다.

2009년 처음 그룹성교육을 시작하며

- * 성인식을 통한 자신의 탐색
- * 나와 만나기 - 어른이 되어가는 나
- * 성 심리 이해 - 성폭력 대처방안 중 자기주장 훈련하기
- * 아름다운 나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체험을 하며, 조금씩 성장해
가는 아이들을 보며 이 사회의 따뜻함을 다시 느끼곤 합니다.

역할극, 미술(플라주지법, 합동화)치료기법

2010년에 많이 활용된 예술치료(춤을 이용한 자신 드러내기) 초기에 실시했던 캠프

또 올해는 남학생 그룹 성교육도 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시도하여 내실있는 성교육이
되었습니다.

성체험관 체험 시 태아 심음소리에 신기해하던 모습, 성교육인형공원에 집중하던 초등부 친구
들.....각기 다르지만 또 어울려 한 그림을 만드는 강사님들과 우리 아이들을 보며 정말 든든하고 이런
교육과 만남을 부모님들과도 함께하면 어떨까? 그런 상상도 해 봅니다.

문제 발생 후에 대처해 주는 것도 매우 든든하지만 이렇게 예방활동을 하는 씨올 여성회를 보며, 앞
으로도 우리 지역의 아픈 부분을 감싸주는 단체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 성평등 다트판 활동 - 인덕학교

그동안 여러 활동을 지켜보며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은 좀 더 당당해 질 것이고, 씨을 여성회는 장애특성을 더 잘 이해하는, 전문 기관으로 충실해 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따뜻한 시선이 우리아이들을 지켜보는 한 더 이상 외롭고 고통받는 장애우들은 없을 것이며 이 시선들이 잠시만 외면을 해도 우리아이들은

이런 노력을 계속하는, 진정한 너른 광주를 만드는 꼭 필요한 기관이 씨을 여성회입니다.



▲ 내 몸은 소중한요 - 인덕학교

여자친구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계기...

이 용 수 (한사랑장애인보호작업장 훈련생)

안녕하세요. 저는 한사랑장애인보호작업장 훈련생 이용수입니다.

한 달 동안 교육을 진행해주신 선생님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성교육 동안 즐거운 웃음과 많은 칭찬을 주신 선생님을 더욱 생각나게 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받아왔던 성교육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주었습니다. 보통 성교육은 한 차례에 내부 또는 외부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번 성교육은 여러 번에 걸쳐 성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내용도 다양하고 성대모사나 노래를 이용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선생님들의 수업방식 등 모두 달랐습니다. 더욱이 선생님들과 친밀한 시간을 보낼 기회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이번 성교육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신체 용어를 정확하고 순화된 표현의 단어를 이용하여 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여자친구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여자친구의 얼굴을 보며 인사를 하거나 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지만 성교육을 통해서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친근한 말과 행동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따뜻하고 친근한 말 한마디 용기내어 건네 보려고 합니다. 여자친구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때론 자유롭지 못한 몸이 나에게 더 큰 마음의 장애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내가 나를 소중히 여김으로써 나로 인해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씨을 여성회 성교육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교육을 통해 저는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인 중증장애인에게 성교육

임 경 화 (한사랑장애인보호작업장 직업훈련교사)

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장애인보호작업장 직업훈련교사 임경화입니다.

저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장애인보호작업장은 일반 고용이 어려운 중증·중복장애인의 직업적 능력과 잔존기능을 최대한 개발하고 강화시켜 생산활동을 통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여에 걸쳐 사단법인 씨울여성회는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성교육을 진행해주었습니다. 그동안의 성교육은 1회기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내용으로 대상자의 나이와 교육 수준, 생활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하여 동떨어진 성교육이 되어왔습니다. 타 기관의뢰 시 장애인 성교육의 대상을 지적장애나 지체장애로 한정을 두고 성교육을 진행하여 뇌병변장애를 가진 우리 이용자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의 성교육이었습니다. 또한 성체험관 교육을 받고자 진행하는 곳을 찾아갔을 때도 일반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휠체어 이동성에 한계를 느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사회에 위치한 씨울여성회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부모, 교사,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주셔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다양한 성교육(성체험관교육과 견학, 인형극 공연)을 지속적이며 체계적 교육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지적능력이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이나 자신이 성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고 일부 이용자의 경우 일반 성인과 같은 성적관심과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성인 중증장애인에게 성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씨울여성회의 성교육은 그들에게 장애가 있지만 일단 우리와 같은 성인임을 전제로 하고 장애와 인지를 고려한 맞춤형 성교육이었습니다. 이번 성교육을 통해 우리 이용자들의 성교육 수준과 개인별 성적관심도를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성적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교육의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여 동안 한사랑학교로 찾아와주셔서 성교육 해주신 씨울여성회 성교육강사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상담소 활동

2000년대 초까지 우리지역 여성들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를 상담받을 곳이 없어 인접시 성남으로 상담을 받으러갔었다. 이에 씨올여성회는 이런 여성들과 함께 하고자 2000년대 초 '가정폭력상담소'를 개소하면서 지역에서 처음으로 피해여성들을 만나기 시작하였다. 그때만해도 상담건수가 100건 이내에서 2012년 올해로 10년을 맞이한 씨올여성회에서의 상담 건수는 거의 800건에 이른다.

올해 상담소 사업의 중점은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였다.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에 약 만명이 넘는 아동, 청소년, 성인이 참여하였다. 이 교육을 위해 경기도와 광주시 지원으로 약 5천명의 아동과 장애청소년이 성교육인형극을 관람했고,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찾아가는 성체험관 교육?견학' 수업에 약 4천명의 청소년(장애인포함)이 참여하였다. 특히 광주지역 5곳 장애학교(시설)을 방문하여 청소년, 교사, 학부모대상 지속교육을 진행한 점이다. 이에 경기도에 감사드린다.

다음은 홍보에 주력하였다. 성폭력예방은 지역민 누구나 해야 하며, 특히 '성폭력없는 우리마을 만들기' 사업을 광주시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10곳 읍면동을 방문하여 그곳 청소년, 주민을 교육하고 홍보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우리지역은 우리가 한다는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했다. 한 해 동안 성교육과 홍보를 위해 다양한 대상을 만나고, 지역을 방문하면서 향후 성폭력예방을 위한 더 세밀한 계획과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상담소 교육 · 사업활동

■ 성폭력예방(성평등) 성교육실시

● 비장애인 청소년 성교육

초중고 청소년의 올바른 성지식과 가치관 형성을 위한 찾아가는 성교육은 성폭력 예방 뿐 만 아니라 성정체성을 가진 밝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성교육은 초중고를 40회 방문하고, 약1,500명이 참여하였으며, 성교육을 해주신 강미정, 배기명, 오마제, 임복희선생께 감사드린다.



▲ 광지원초성교육-배기명강사



▲ 광일중성교육-오마제강사

● 장애인 청소년 성교육

장애청소년 성폭력예방 성가치관 교육은 5월부터12월까지 76회 찾아가는 교육에 약1200명이 참여하였다. 장애인 특성상 일회성 교육으로 성폭력예방, 성가치관을 형성할 수 없어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장애청소년 성교육이 진행되었다. 개별상담, 3회이상 성교육, 성체험관 교육과 견학, 성교육인형극공연 관람, 그리고 멘토링상담, 부모와 교사에게도 성교육을 하였다.

이 교육은 동현학교, 삼육재활학교, 성분도복지관, 인덕학교, 한사랑학교가 참여하고, 강미정, 배기명, 오마제, 임복희 성교육강사의 열정과 수고로 진행되었으며 많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장애인 성폭력피해의 심각성이 지난 해 '도가니' 영화로 알려지면서 우리지역 장애청소년 성폭력예방을 위해 지원해준 경기도(경기도여성발전기금사업)에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 삼육재활학교 성교육 - 임복희 강사



▲ 성분도복지관 성교육-강미정강사

● 성인대상 성교육

성범죄는 우리사회 성의식 왜곡에 따른 성차별이 원인이며, 연일 발생하는 성폭력이 우리사회 성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성평등한 지역문화, 성폭력예방을 위해 청소년을 교육하고 양육, 지도하는 학부모, 교사, 경찰, 마을리(통)장대상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하였다. 찾아가는 20회 성교육에 약 500명이 참여하였다.

* 광주시 5곳 읍면동(광남동, 도척면, 오폭읍, 중부면, 퇴촌면)110명 마을리(통)장이 참여했으며, 성폭력예방 교육은 '성폭력 없는 우리마을! 안전하게 우리가 지켜요.' 주제로 진행했다. 각 마을(주민)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성폭력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홍보교육이었다.

2012년 12월 현재 여성가족부 성범죄 신상공개 대상명단에 광주지역에 12명이 거주하며 6명이 오폭읍에 살고 있다. 이 사업은 광주시(광주시여성발전기금사업)지원을 받아 진행했다.

* 아동, 여성을 납치, 감금, 살해하는 사건이 최근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면서 경기1366 과 네트워크화 사업으로 초동수사와 성폭력예방 홍보교육을 했다. 성폭력추방기간(11월 25일-12월1일)에 7 곳지구대 파출소(경안동, 곤지암읍, 남한산성, 오폭읍, 태전동, 초월읍, 퇴촌면)약 130명 경찰이 참여했다.



▲ 10월 오포읍주민센터,마을리장



▲ 9월 인덕학교 교사



▲ 경안동지구대파출소 홍보교육 11월25일

● 성폭력피해청소년 성교육

성폭력피해 청소년 20명을 개별상담 2회, 집단성교육 10회, 1박2일 치유회복캠프를 7월 부터 11월 까지 진행했다. 주로 초, 중여학생이며, 성폭력 피해라는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또래집단을 통해 '나만의 아픔,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죄책감, 분노에서 벗어나게 하고, 성폭력피해재발방지 및 자존감을 향상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도록 진행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위탁으로 이루어졌다.

● 성체험관 교육 · 견학 실시

성체험관 교육은 올바른 성가치관, 성지식을 습득하여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정체성을 지닌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성체험관 교육은 1관 '내몸은 소중한요', 2관 '성폭력 예방, 성감수성 UP!', 3관 '성평등 세상을 위해 서로



▲ 9월 인덕학교



▲ 10월 한사랑학교

존중하고 배려해요.' 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이 교육은 찾아가는 성교육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또래끼리 직접 보고, 듣고, 만지는 참여 중심의 성교육에 10개 학교에서 약3,500명이 참여했다.

● 성교육 인형극 공연 실시

성교육 인형극단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성폭력, 학교폭력, 어린이유괴예방 등 어린이(장애)전문인형극단이다. 아동(장애청소년)들에게 친근하고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인형극을 통해 성폭력예방, 성평등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 관람한 주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청소년으로 105개 기관 약5,300이 참여하였다. 무겁고 많은 공연 기기를 싣고 광주 전 지역을 방문하여 성교육 인형극 공연에 많은 땀방울을 쏟은 김태식, 유옥



▲ 쌍령초1-2학년,12월



▲ 동현학교,11월



▲ 어린이집 공연,10월

란(단장), 장소운 선생이며, 특히 이동이 불편한 장애아동, 청소년에게 공연했을 때 가장 보람되었다는 인형극 단원께 감사드린다. 이 사업은 광주시 위탁교육으로 진행했다.

● 제10-11기 성교육전문강사양성교육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은 아동 및 청소년, 성인대상 성평등의식,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과 성평등한 문화를 만드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다. 이 교육은 상(4월-7월), 하반기(10월-12월) 초,중,고급 과정 약60시간 교육에 11명이



▲ 제10기성교육전문강사 수료생, 8월



▲ 제11기성교육전문강사 수료생, 12월

이수하였다. 씨울여성회 성교육전문강사로 수료하신 제10기(변명선, 손애정, 유선영, 이선주), 제11기(김민서, 배영숙, 배영애, 임주영, 조숙희, 정해정, 홍지영)선생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소모임 활동

* 성교육전문강사모임

성폭력예방 성인식 확산을 위한 체계적, 전문적인 교육은 각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오전10시)진행하는 성교육전문강사 모임이다. 이 모임은 상반기만 진행했으며, 직장인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 성교육을 위해 한국양성평등진흥원 교재로 진행했다. 강미정, 박경애, 배기명, 오마제, 임복희, 조형자선생이 참여했다.

그리고 한 해동안 아동,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많은 대상 성교육에 대한 평가 간담회를 가졌다. 우선 의미있었던 교육은 5개 장애학교(시설)아동, 청소년, 교사, 부모대상 교육을 5월부터 12



월까지 지속했다는 것이다. 많은 준비를 했지만 장애우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성교육과 많은 교구 및 영상물을 만드는 것이다. 내년은 각 마을 노인정을 방문하여 '아름다운 성! 노후를 즐겁게!' 라는 주제로 성교육을 진행할 것이다.

보다 전문적인 성교육을 연구코자 '성교육강사반모임'에서 '성교육연구반'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복희회장, 임주영총무가 선출되어 내년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 성교육인형극반 모임**

아동, 장애인 청소년 대상 성폭력 예방, 성평등 인식 교육을 쉽고 재미있게 공연할 수 있도록 성교육 인형극단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모임이다. 매주 화요일(오전10시)에 모임은 시나리오 구성, 공연 소품제작 및 수선, 공연연습 등을 하였다.

12월21일 성교육인형극단원은 한 해동안 성교육인형극공연 대한 평가 간담회를 가지면서 약5천명의 아동 장애청소년을 만나 성폭력예방, 성평등, 유괴납치예방 공연이 자신들에게 많은 보람을 주었다고 한다. 무대박 아이들의 환호는 온 얼굴이 땀범벅에 힘겨움도 잊은채 즐겁게 했다면서 내년에 이들을 만나기 위해 더 재미있고 유익한 공연을 준비하자는 다짐을 가졌다

단원은 김태식, 유옥란(단장), 장소윤선생이며, 작년부터 올4월까지 이산하, 이해영 선생이 수고하셨으며, 감사드린다.



▲ 인형극 연출 강사 이정식, 예소리회장

*** 성폭력예방 홍보활동**

성폭력예방 홍보활동은 성폭력 예방을 통해 성범죄를 줄이고, 성폭력피해자는 빠른 지원서비스를 받도록 본 상담소를 알리는데 주안점을 주었다. 홍보는 연중실시 하였으며, 총94회 투입인력이 약 2,100명이었으며, 지역언론, 홈페이지, 우편발송, 현수막 게시, 기자회견, 직접배포, 거리캠페인, 교육 등을 통한 홍보였다.

참여한 대상은 아동, 청소년,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시민 등 다양했으며, 홍보장소는 광주 전지역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월3회이상 시민에게 홍보물(안내장, 물티슈, 대일밴드, 칫솔세



▲ 3월 경안동 시장 입구

트, 포트잇, 볼펜)을 직접 배포, 전시(현수막, 판넬), 설명 등 주사위 놀이, 사다리타기, 퀴즈맞추기, 스티커붙이기 등 시민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성폭력예방에 동참하고 우리마을, 주민은 우리가 함께 한다는 시민의식을 갖게 하였다.

홍보했던 장소는 경안동시장입구, 경안동우체국앞, 송정동구광주시청(알뜰장터), 시내전지역, 곤지암읍전지역, 퇴촌면시장(장날)과 농협앞, 장지동사거리, 광남동 농협앞, 초월면 사무소 앞, 오포도서관 내 등에서 진행했다.



▲ 6월구 광주시청 알뜰장터에서



▲ 5월 경안동광주우체국 앞



▲ 7월 퇴촌면 시내 전지역 캠페인



▲ 오포도서관, 10월



▲ 7월 경안동 광주우체국 앞



▲ 곤지암시내 전지역 캠페인, 10월



▲ 장지동 사거리캠페인, 10월

상담소 연대활동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정기총회 참석

2월3일(오후1시-7시)대전호텔인터시티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126곳에서 활동하는 약200명의 상담원이 참석하여 정기총회를 가졌다. 1부는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효과분석 및 매뉴얼개발사업과 주요 사업발표' 2부는 정기 총회에 류복연 소장이 참석하였다.

* 경기남부권역 상담소회의

경기도 남부권역 성폭력상담소 15곳이 활동하고 있으며, 회의 참석은 류복연소장이 하였다. 5월 25일 수원여성의전화에서 9월28일 경원사회복지회에서 각 상담소 소장이 참석하여 '정기워크샵, 2013년 여성가족부 상담소 평가지표, 회원가입' 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였다.

● 2012년 정기워크샵

성폭력없는 세상만들기 정기워크샵이 한국여성의전화교육장에서 10월12일(금)진행했으며, 류복연소장, 김영숙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 친고죄폐지촉구 전국시위

국회 성폭력 특위에서 친고죄 폐지안이 통과되었다. 이와 같은 국회의 흐름을 친고죄 폐지로 확실하게 이어가고자, 친고죄 폐지 확정을 촉구하는 전국 공동행동을 11월20일(화) 12시 ~ 12시30분)실시하여 본 상담소도 광주보건소 앞에서 진행했다.



● 성폭력추방주간 기념

성폭력추방주간 동안 반성폭력 토크 콘서트는 '일상에서의 성폭력 비(꼬고)틀(어서)(사뿐히) 즈(려밟기)주제로 11월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했으며, 류복연소장 김영숙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 지역여성상담소(시설) 장 간담회

지역 내 여성폭력 상담소, 시설장은 5월, 6월에 간담회를 갖고 정보교류 및 연대활동을



▲ 7월 여성주관 여성시대 노래 - 수화공연



▲ 7월 성폭력예방 홍보 - 광주시청

추진하자는 취지로 모였다. 7월광주시여성주간행사에 수화공연 ‘여성시대’ 노래로 개막전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시민 대상 여성폭력예방 홍보물 전시와 배포활동도 함께 하였다.

■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사례회의

본 상담소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서비스를 위한 통합사례회의가 광주시청, 경찰서, 교육청, 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등 기관이 모였다. 사례관리 대상자 여자청소년 4명(12세, 15세, 16세, 17세)으로 류복연소장이 참석하였다.

■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례회의

청소년 대상 사례회의가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8월부터 10월까지 월1회 긴급지원(생활, 의료, 상담치료 등)심의위원으로 소장이 참석하였다.

■ 광주시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회의

6월-9월에 열린 광주시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회의는 통합사례관리, 위촉장 수여, 민간부분 부위원장 위촉(류복연), 아동안전지도제작, 관내 아동·여성폭력피해 대상자 사례 관리 등 논의 하였으며, 류복연 소장이 참석하였다.

■ 광주여성연대와 성폭력사건 공동대응

* K중학교 선후배 집단성폭력사건

지난 4월 K중학교 선후배 집단성폭력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소홀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어 8월 말 긴급회의를 광주여성연대에 제안하였다. 3인대표(곽라분이, 정인숙, 김수영)와 상담소는 학교장면담과, 학교측이 조치해야 할 5가지 요구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교육관계자가 해야 할 문제 해결보다 수사기관의 결과만 기다리는 6개월동안 다수의 가해자로부터 피해자, 가족, 주변인이 겪는 심각한 피해로 감사관청구(10월)와 학교장, 교육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1월29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하였다.



▲ 기자회견 - 광주하남교육청에서

* S교회(지역아동센터)목사 성폭력사건

경기경찰청 성폭력전담수사기관에 송정동 소재 S교회목사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2명 여중생을 성폭력하여 12월 연말 경 접수되었다. 상담소는 피해 여중생 2명을 상담 후 즉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광주여성연대에 공동대응을 제안하고 현재 지원중에 있다.

■ 경원사회복지회와 네트워크 지원사업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미술치료지원 사업은 아동여성폭력피해중앙지원단 주최 경원사회복지회주관으로 본 상담소와 네트워크로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였다. 우리지역 K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학생은 2011년 잘 아는 이웃아저씨에 의해 약 6개월간 피해가 있었으나 보호자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여전히 같은 이웃으로 살고 있어 피해재발방지와 심리치료를 위해 3개월간 권현정 미술치료사가 수고했다. 감사드린다.

■ 경기1366과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활동

아동,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이 연일 발생되면서 경기도 지원, 경기1366 주관으로 경기도 내 모든 상담소와 관할 지구대, 파출소의 사건 초기 대응과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였다. 본 상담소는 7곳 지구대 파출소(경안동, 곤지암읍, 남한산성, 오포읍, 퇴촌면, 태전동, 초월읍)에 근무하는 약90명 경찰 대상 교육, 홍보활동을 11월25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였다.



[소감문]

성폭력 교육

김나영 광남초등학교 3학년

여자인형을 선생님이 옷을 벗기며
먼저 브라우스와 삼각팬티가
보인다

먼저 브라우스를 벗기면

이 나온다

그 다음 팬티를 벗긴다.
그러면 털이보이고 여자만
갖고 있는

이 있다.

너무 야해 우리반은
얼굴이 빨개진것 같다.

* 10월 광남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3-4학년
성교육체험관 '성폭력예방 감수성UP'
교육을 받고 느낀점을 자유롭게 시로 표현하였다.





광주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교육 · 문화체험 · 행사 활동

- 한국어교실
- 문화이해교육
- 부모교육
- 6월 세계인의 날행사
- 8월 여름가족나들이
- 12월 송년잔치
- 상담 · 센터가족동향

● 한글학교와 고려인 - 윤영애 씨울여성회 감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활동

〈옹비 · 도전 · 아픔의 2012〉

1. 한국어 교실

1.1 한국어 교실은 1월부터 2월까지 매 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귀화시험 준비반을 실시하였다. 총 15회 연 181명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부하였다.

1월에 귀화시험을 본 보피짱과 딘티띠 그리고 차명령씨가 합격하였고, 3월에 보티

투승, 김티홍니, 후이티란이 합격하여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일에 도전이 되기도 하였다.



1.2 한국어 교실은 위탁교실과 위탁받지 않은 교실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한국어교실에 강사로는 지난해에 함께 했던 운영애 선생, 이경자 선생, 성명옥 센터장 외에 금년부터 함께한 오마제 선생이 담당하였다. 일시는 매 주 화요일, 금요일에는 한국어반(기초, 초급, 중급, 고급) 수업을 하고, 수요일에는 귀화준비반과 한국어능력시험준비반을 실시하였다.

○ 한국어 과정별 현황

구 분	계		기 초		초 급		중 급		고 급		기타 (귀화시험대비반등)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69	1336	23	450	21	300	14	397	11	189	(56)	(349)

* 한국어교실에 현재는 나오지 않더라도 행사나 모임에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하고 있다



▲ 중급반-요리교실



▲ 초급반-요리교실



▲ 은행업무체험수업

2. 문화이해 교육

2.1 설날 잔치

2012년 2월 21일 화요일에 설날과 정월대보름을 생각하면서 잔치를 세상의 빛선교교회에서 이주여성 45명, 애기 19명, 봉사자 외 15명이 참석하여 실시하였다. 이 잔치도 지난해 이어



▲ 설날잔치



▲ 윷놀이 활동

모두회가 후원하고 진행해 주었다. 중국에서 온 이주여성들이 직접 만두를 빚어 떡만두국을 먹고, 설날의 유래, 세배하는 법, 전통 문화의 이론을 배우고, 놀이를 함께 하였다.

2.2 한국 예절에 대한 교육

2012년 4월 20일에 남한산성의 행궁과 승렬전을 탐방하였다. 하영호 훈장의 안내로 문화 해설가이신 권해룡 선생의 행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승렬전에서 정통 한국의 절하기와 방식



사용의 예절을 실습하면서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는 21명과 교사 4명이 참석하였다.

2.2 문화 이해교육

2.2.1 영화 관람 11월14일에 13명이 “광해”를 롯데시네마에서 관람하였다.



2.2.2 문화탐방으로 국립
민속박물관과 경복
궁을 12월 8일에 관
람하였다.



3. 교육

3.1 부모교육

일 시 : 7월 15일 (일요일)
장 소 : 교육관, 동해바다 생선구이집
주 제 : 좋은 부모 · 건강한 가정
참 여 : 16가정 42명
강 사 : 이희숙 목사



3.2 부모 교육

주 제 : 행복한 가정 - 소통
일 시 : 2012.11.25. 1시 - 4시30분
장 소 : 씨울 여성회 교육관, 김영희 동태집
강 사 : 이희숙 목사 (아기학교 원감)



4. 행사

4.1 3.8세계여성의 날 한국대회 참관하다.

3월10일에 서울광장에서 있었던 3.8세계여성의 날 기념대회에 센터 학생 10명이 참관하여 행사를 둘러보았다. 배운대로 전철도 타보고 점심을 먹고 각 부



▲ 서울 시청 앞에 가기 위해 전철을 타고

스 행사에 참여하여 선물도 받았다. 또 자기 나라에서 열리는 여성대회를 비교하는 학생도 있었다.

4.2 광주 세계인의 날 참여

6월 1일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여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시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제 1회 광주시 세계인의 날 행사를 6월 3일 청석공원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에 외국인주민으로 통합사회를 이루며 잘 살아온 사람들에게 표창을 하였는데, 우리 센터에서 추천한 덩티즈영은 국회의원 표창, 김안나는 시의원 표창을 받았다. 참석한 이주민들은 풍성한 볼거리와 상품으로 인해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추첨을 통한 상품을 받은 이들은 심석범(덩티즈영 남편) 자전거, 최준환(구재리 남편) 어린이 자전거, 딘티띠는 한우 10Kg을 받았다.

4.3 여름 가족나들이 하다.

일 시 : 8월 5일 일요일
장 소 : 강원도 연곡해수욕장
인 원 : 62명 (어린이 20, 봉사자 5명 포함)



4.4 김장 담그기와 12월 8일에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에 참석하다.

12월 8일에 이주민선교협의회 주관, 예장 총회, 한국교회희망봉사단과 C채널이 후원으로 서울 동승교회에서 김장을 담아 서울 쪽방촌과 참가자들에게 나누는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어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에 함께 참여하였다. 40여명이 참여하였다.



4.5 송년 잔치

12월 29일에 문화웨딩홀 3층에서 결혼이민자 가족 성인 150여명과 자녀들 70여명이 모여와서 예상보다 인원이 많아 음식이 모자랐다.



곽분이 상임이사의 인사말씀과 김혜란 목사의 이야기 설교 그리고 1년간 수고하신 이경자선생님, 오마제 선생님과 통역, 아기돌봄 등 우리 센터에서 다양하게 일해 준 디터즈영에게 작은 선물을 증정하였다. 이어서 빼 놓을 수 없는 각 가정의 장기자랑을 아이들부터 시작하여 몇 가정이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6년째 센터장을 맡았던 성명옥 센터장이 퇴임하게 되어 인사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촬영으로 7시 30분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조금 일찍 끝났다.

5. 상담

1. 밧00 : 신병상담(1,2)
2. 조0 : 생활 및 비자 관계 상담(1,3)
3. 노0 : 협의 이혼 서류 접수후 상담(1,4)
4. 조0 : 비자 연장관계로 수원출입국관리소 동행(1,5)
5. 응0티호0 : 부모 초청장 관계 상담(1,6)

6. 람 : 귀화시험 관계 상담
7. 노0 : 광주법원 동행- 이혼 서류 열람(1.9)
8. 반 : 내외 친정 방문 비자관계 상담(1.10)
9. 보0짱 : 귀화시험 관계(1.11)
10. 김0혜, 김0수 : 부모 이혼관계 상담(1.12)
11. 느영 남편 : 부인 귀화관계 상담(1.18)
12. 흥예0 : 부부함께 친정방문 상담(2.2)
13. 아인 : 부모 초청관계 상담(2.7)
14. 0나 : 한국어능력시험 관계 상담(2.14)
15. 밧00 : 가족 비자연장 관계로 수원출입국관리소 동행(3.8)
16. 0짱 : 아산병원 입원시 병원비관계 상담차 문병(3.9)
17. 0 메 : 성남법원 동행(이혼후 자녀 양육비 관계, 3.12)
18. 0메이 : 자녀 신병 관계 상담(3.13)
19. 밧00 : 무한돌봄센터, 경안직접자사에 생활비 또는 치료비 보조 건 상담(3.22)
20. 아00비 / 성남법원 조정실, 법무사 면담 동행 (4.9)
21. 진0화(베)/ 경기 1366에서 동행 (4.18)
22. 토야(똥)/ 경기1366에서 동행(4.23)
23. 도0호영/ 귀화 상담(4.10), 하이 친청 모친 초청 건(4.10)
24. 토야 / 귀가시 동행
25. 아00비 / 성남법원 조정시 동행(5.3)
26. 지영 부부 / 친정부모 초청 건(5.10)
27. 강태희(수진 남편)/장모 체류 연장 건(5.14), 토야 남편(전화)/가출(5.14)
28. 메0씨, 남편 / 이혼 후 (5.21)
29. 아00비/ 성남법원 동행(선고 공판, 6.7), 딸 여권신청 동행
30. 버티야우/ 귀화 상담(6.26)
31. 보김녹 동생/ 취업 (6.27)
32. 나00 / 가폭 상담 (6.28)
33. 탁티탄 - 초청 관계 (7.2)
34. 아00 / 부부 상담 (7.5)
35. 아00 상담 - 이혼하고 아이 포기 면접권만 갖기로(7.6)
36. 관00 - 방문 상담 부부갈등 (7.11)
37. 송 - 자동차 사고 처리 문제- 법률구조공단 전화함(7.23)
38. 송 - 광주경찰서 사고 위치 상황 열람(7.24)
39. 송 - 성남 법률구조공단 동행 상담(7.25)

40. 왕 0 - 병원 진단서 관계 및 병원비 후원 요청 건(8.2)
41. 이선의 - 장모 항공권 관계(8.8)
42. 이멜다 - 아름이 어린이 집 관계(8.14)
43. 로00 - 부부 갈등(8.14)
44. 강리리 - 친정 방문 건(8.17)
45. 마이남편 - 부인 귀화문제(8.29)
46. 아0 - 딸 재 은둔시작 상담(8.27)
47. 아0 - 집 방문 딸 학교 보내도록 데리고 나옴(8.30)
48. 아기 - 몽골 딸 학업문제(9.6)
49. 승 - 남편 문제 상담(9.11)
50. 이0 핑 - 부안 남편과의 문제(9.4)
51. 마이, 린희 : 귀화신청 서류에 관하여 (9.25)
52. 왕0 : 아산병원에 다녀온 후 조치에 대하여(9.25)
53. 아00비 : 딸 문제(10.2)
54. 야우 : 딸 상담 (10.10)
55. 아00 : 이혼 후 삶에 대한 일과 자녀 포기 후 삶에 대하여(10.12)
56. 리리 : 부모 초청에 관한 상담(10.19)
57. 로00, 예00 : 가정 폭력으로 가출해서 내방(10.22)
58. 야0 : 집 기거 문제로 (10.24)
59. 린희 : 친정 방문 건 (10.26)
60. 호영 : 동생 초청 문제 (11.20)
61. 절0 : 둘째 출산 후 우울증 생김, 남편 의심(12.10)
62. 조0 : 암 의심 진단, 수술 후 확진 등 (12.11)
63. 조0 : 체류 연장 서류에 대하여 (12.17)
64. 미르 : 남편 구타 그간의 폭력에 대하여 (12. 18)

6. 센터 가족 동향

1. 귀화 시험 합격자 : 차명령, 딘티피, 보티짱, 보티투승, 김티홍니(김지영), 후이티란(원정희), 양소운, 딘티즈영
2. 제마 : 3녀 석윤희 돌(2.6)
3. 딘티즈영 : 2월 15일부터 보조 교사로 출근함
4. 프영타오 : 딸 가영 돌(2.25)

5. 지엠 : 2남 지환 돌(2.18)
6. 부티아인 출산 / 딸(4.8)
7. 응웬티흐영 출산 / 딸 (5.13)
8. 바기(몽) 청솔 적십자사와 연계/의료비 지원(4.20)
9. 보티투송 출산 / 아들 (4.23)
10. 투응 출산 / 아들(5.3)
11. 린훤 아들 돌(5.5)
12. 김지영 출산 / 딸 (5.27)
13. 막티하이 결혼 / 6. 10
14. 응웬마이프엉 결혼 / 6.24
15. 한국어 능력시험 수험자 3명 탈락
16. 종이매 아들출산 (7.18)
17. 투이안 아들 출산 (9.23)
18. 응웬티람, 손규호 합동결혼식 참여(KBS, 10.7)
19. 레우 아들 출산 (11.10)
20. 부티홍 아들 돌 (11.10)
21. 동앵링 딸 출산 (12.4)
22. 강리리 딸 돌 (12.15)
23. 탕한메이 딸 돌 (12.22)

7. 기타 활동

1.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정책회의 및 실행위원회
2. 수원출입국관리소 사회통합자문위원회
3. 경기여성연대
4. 광주여성연대
5. 서울노회 국내선교부 전도목사 모임 참석
6. 서울노회 교육자원부 실행위원회
7. 광주이주민단체협의회
8. 예장 이주민선교협의회
9. 광주시 외국인주민시추위원회

한글학교와 고려인

윤 영 애 (씨올 여성회 감사)

6월8일(토) 새벽 4시에 제가 사는 작은 마을 노보니폴스꼬에 도착했습니다. 모스크바까지 비행기로 9시간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비행기로 2시간 다시 버스로 2시간 거리입니다. 모두들 잠든 고요한 새벽이지만 광활한 땅과 아름다운 구슬만한 별들이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주일날 한글학교 학생들 어른과 아이들이 예배를 마친 후 환영 노래를 불러 주었습니다. 학교종이 땡땡땡, 리리 리자로 끝나는 말은, 꼬끼리 아저씨는, 칙칙폭폭 떠나간다, 나리나리 개나리를 모두 외워서 열심히 부르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맘 저속 깊은 곳에서 이들을 위해 이 한 몸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감동이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들은 소리이지만 한글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꼭 해야 하니 모여서 연습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이 한민족의 얼을 이어간다고 여겨졌습니다.

제가 이들을 만난 것은 2004년 10월이었습니다. 이들의 부모나 할머니들 시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고려인에 대한 강제 해산이 되었습니다. 블라지보스톡에서 자리를 잡고 지내던 고려인들이 하루 아침에 유개차(동물. 짐을 싣는 기차)에 실려 6천 Km 나 되는 중앙아시아에 버려졌습니다. 이유로는 러일전쟁으로 인해 생김이 비슷한 한국인을 스파이로 보았다는 것과 근면한 고려인들을 흠어서 광활한 땅을 일구기 위해서라고 혹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 좁은 공간에서 유독가스(오물)로 먹을 물도 없이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은 죽어나갔고 사람이 죽으면 차를 세우지도 않은 채 그냥 버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내린 곳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입니다.

겨울에 광활한 광야에 버려진 이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갈대밭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 했고 유별난 모기떼로 인해 고생은 이루 말 할 수 없었습니다. 겨울을 나는 동안 노약자, 어린아이들 또한 생명을 많이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듬해 고려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농기구 하나 없이 맨 손으로 땅을 일구어 농작물을 심었고 기적적으로 추수를 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자식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중요한 자리에 앉아 요소요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1991년 소련이 러시아로 되면서 연방국들은 독립을 하게 되었고 독립한 나라들은 자국어와 자국민 우선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우즈베키



▲ 2월 설날잔치 인사



▲ 한국어교실 고급반 요리체험. 윤영애한국어강사(중앙)

스탄에서는 아탈해가 마르면서 생기는 공기 오염과 러시아어로만 살아왔고 자신들의 일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자 러시아로 집단 이주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40세대). 마침 볼고그라드주의 승인으로 노보니콜스꼬고에 작은 마을에 2002년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주할 때 제가 속한 교회(높은뜻 승의교회)가 이들에게 살 집과 센터(우정의 집)을 마련해 주었고 지금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2004년 제가 와서 한글학교를 세우고 한글과 문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600호)에 인구는 1,700명쯤 됩니다. 고려인은 10%입니다. 이주 당시 물이 부족한 이곳은 고려인들이 집단(40세대) 이주로 인해 물이 더 부족하다고 고려인을 싫어했고(지금도 부족하지만 고려인들을 잘 대해줌) 학교에서도 고려인들을 받아 주질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 보다 근면하고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서 러시아 학교(초 중 고가 하나로 11학년제이고 9월 학기)에서도 고려아이가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아이들의 우수성에 언제든지 학교 입학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가도가도 막막한 들판입니다. 하수도가 없고 이제야 인터넷(모뎀)이 들어왔습니다. 주로 토마토 농사(러시아 도마도 생산량 60%)이고 수박, 메론, 오이, 양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땅이 비옥해서 심었다 하면 잘 자랍니다. 과일 맛이 아주 달고 좋습니다. 물은 석회석이고 짭니다. 여름은 영상 40도 겨울은 영하 40도입니다. 매주 월요일 장이 잠깐 썩니다. 행정 도시는 한 시간 삼십분 거리에 있

고 버스는 이른 새벽과 오후에 한 번 있습니다.

이달은 피를 빨아먹는 날파리 떼들로 온 주민이 몹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가강에 주로 살고 있는데 바람이 없으면 마을에 모여 옵니다. 고기떼들의 밤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피를 좋아하니....

왜 한글학교를 세웠나?(2004년 11월 학교 개원)

우즈베키스탄에서 은행원, 의사, 약사, 회사 간부, 교사로 지낸 이들은 낯선 땅에 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 힘든 일이었습니다. 러시아 pass port가 없는 이들은(현재 러시아 시민권이 있음)경찰의 밥이었습니다. 낙심과 앞날에 대한 불투명성이 이들에게 불안감으로 왔습니다. 이들은 센터(우정의 집)에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아이들도 센터에 모여서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고려인들의 말에 의하면 1988년 한국에서 개최된 올림픽게임을 통해 한국의 발전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뿌리인 한국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고 한국말을 잊어버린 자신과 후손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자하는 이들의 염원과 선교사인 제가 만난 것입니다. 저의 역할은 한글학교를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얼)을 찾고 독특한 문화의 소유자로 러시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정의 집(센터)을 중심으로 고려인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잔치도 하고 교육도 이루어지고 서로 나누고 위로하며 고려인의 공동체가 결속되었습니다. 특히 놀이시설과 놀이문화가 없는 아이들은 학교 수업이 없는 날은 센터에 모여서 노래 춤 사물놀이를 배우고 즐깁니다.

한글학교의 성과

- 한글을 통해 고려인 아이들이 꿈을 가지게 되었다.
- 한글학교를 통한 문화 교육 활동(예절, 춤, 태권무, 사물놀이, 전통놀이 등)은 고려인들과 정체된 지역사회에 활기를 넣어주고 있다.
- 고려인의 위상이 높아졌고 고려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함.
- 학교(쉬폴루)에서도 한국문화의 날을 만들어 놀이(제기차기, 젓가락으로 콩줍기) 음식(김밥, 잡채, 전) 춤(꼭두각시)을 보였고.
- 문제아(고려인)가 한글학교를 통해 모범생이 되어 학교선생님이 고맙다고 인사.
- 국가의 주요행사(수박 festival, 고려인축제, 모스크바 태권도 시합 등등)에 초청받아 공연.(현재 까지)
- 27개 면에서 노보니폴스꼬에 면장은 부러움을 샀고 두 시간(12:00-14:00)은 사물놀이 연습시간으로 주민들에게 양해 해 줄 것을 선포.
- 한글반 학생들의 견학(볼고그라드 파노라마) 후의 독후감(러시아어)을 읽은 러시아인들에게는 감동으로 작용.
- 한글반 학생들로 인해 노보니폴스꼬에가 올라가니까 한글반 학생들 스스로가 지역 공동체(지역사회)의 일원인 것을 인식, 책임감을 가짐
- 다민족 국가 러시아에서 노보니 폴스꼬에 고려인들의 활동을 지역 신문과 모스크바 일간지에 게재 됨
- 인재양성(지도력): 이 이리나(53세 한글학교 교장)는 한글학교(2004년 11월부터 현재)에서 한글을 익히고 통역훈련을 통해 볼고그라드 주에서 실력 있는 통역가(한국어-러시아어)로 알려짐. 한국어가 향상이 되면 통역사 자격증을 따려고 함- 만약 한국 중소기업이 볼고그라드에 들어온

다고 했을 때 계약 서류 작성 할 때 자격증을 가진 통역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올라(18세)는 어려서부터 한글 공부(초창기-현재), 13회“재회동포 문학상”에 공모하여 중고등부에서 장려상을 수상(제목: 한글선생님과 나의 꿈) 했습니다.

맺으며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7살 리기따가 와서 동생을 데리고 한글을 배우겠습니다. 현재 성인반과 10월에 있을 topic 시험반. 어린이 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후에는 사물놀이를 아이들과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결혼이민자들과 씨움 여성회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참고 고려인들의 역사

고려인들의 역사는 150년이 된다고 합니다. 빈곤으로 인해서 또는 정치적이 이유로. 독립운동으로 한반도 국경에 있는 러시아 블라지보스독에 고려인촌이 생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91년 전까지 이념 장벽으로 우리는 서로를 몰랐고 담을 쌓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로 되면서 한국과의 경제교류와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볼고그라드주 시내에 가면 큰 간판 삼성이라는 글자를 읽을 때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버젓이 한국기업의 간판이 붙어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 집니다.



책과 함께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씨울여성회에서 추천합니다.
작은 책이 세상을 바꿉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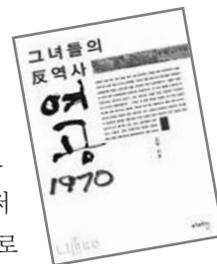


『너 아니면 나』

『너 아니면 나』는 성폭력 피해자들, 성폭력에 관해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성폭력을 당한 사람을 보살피거나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심리 치료서이다. 이 책은 성폭력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치료해 생존자가 되고 회복자가 될 수 있는, 성폭력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셸프 치료 가이드 8단계의 방법을 알려준다

여공 1970

1970년대 노동 현장에서의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공에 대한 지배적인 지식 담론이 전제하는 객관적인 역사가들이 공유하는 범주들, 즉 생계 보조적 단기 출가형 노동, 낮은의식, 수동성, 경제 조합주의적 필연성 등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 하였다. 저자는 ‘노동사’ 나 ‘밑으로 부티의 역사’ 에 관심을 가지고 여공 담론의 계보학을 그려냄으로써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주의의 노동 담론과 노동운동 담론에 의해 몰수되었던 익명적 지식들을 들추어 낸다.



오빠는 필요없다

1990년대 사회운동에 몸담은 여성들이 직면한 ‘진보’의 가부장제에 대한 고발이자, 그것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실을 찾아나간 과정을 기록한 책. 여성학 박사인 저자가 8년 전에 쓴 논문 『사회운동의 가부장성과 여성주의 정체성의 형성』(2001)을 바탕으로 다시 쓴 것으로, 이른바 진보적이라는 남자들의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행태를 꼬집는다.

씨을여성회 회원 소식

1. 임월은...

- 씨을여성회 신입이사로 곽혜영, 윤종설, 정인숙선생 위촉되었으며, 그동안 아낌없는 열정과 애정을 주신 김신성, 성명옥, 홍종순이사님이 퇴임하셨습니다. 많은 여성들과 함께 해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 운영애 감사님은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12월 현재 러시아에서 우리동포(고려인)에게 한국어, 한국문화 등 전파하고 계시며, 꽃피는 3~4월경 입국예정입니다.

2. 회원은...

- 신입 회원으로 등극하신 강미정, 고영신, 김민서, 김문자, 김태식, 배기명, 배영숙, 배영애, 오금자, 유병순, 이철이, 임복희, 임주영, 조형자, 정해정, 최혜자, 홍지영선생이십니다. 환영하며, 여성들에게 희망을! 소외와 폭력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과 늘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3. 다문화가정은...

- * 귀화 시험 합격자 : 차명령, 딘티띠, 보티짱, 보티투승, 김티홍니(김지영), 후이티란(원정희) 양소운
 - * 자녀 돌 기념 : 제마-3녀 석윤희 돌(2.6), 프엡타오-딸 가영 돌(2.25)
지엠-2남 지환 돌(2.18), 린훤 아들 돌(5.5)
 - * 자녀 출산 : 부티아인-딸(4.8), 응웬티호영-딸 (5.13),보티투승-아들 (4.23)
김지영-딸(5.27), 투용-아들(5.3), 종미매- 아들(7.18), 투이안-아들(9.23)
 - * 바기(몽) : 청솔 적십자사와 연계/의료비 지원(4.20)
 - * 결혼식 : 막티하이(6.10), 응웬마이프영(6.24),누에티람(10.7)
- 한국어가 어렵다는데 국적, 나이를 초월하여 당당히 시험장에 나가서 합격하신 이주여성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드디어 한국국적 받으시고 한국 국민되신 걸 축하합니다. 축하할 일 너무 많네요. 아들딸 낳으시고, 잘 자라라고 백일, 돌잔치로 동네방네 소문내서 잘 보살펴달라는 기념들!!! 그리고 검은머리 휘날리며 먼 나먼

타국에 터를 잡은 이주여성! 자상하고 멋진 남편과 백년해로 하고자 부부로서 맹세하는 결혼식 축하축하하며, 오순도순! 알콩달콩 잘사시길 기원합니다. 본국(몽골)에는 백혈병치료 어려워 남편, 자식 먼리하고 한국에서 치료받고 있는 바기에 게 약값, 쌀 등 후원하는 청솔적십자에 감사드립니다.

4. 활동가는 ...

- 성명옥 센터장이 2007년부터 우리지역 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을 만나 함께 웃고 울었던 긴 시간을 뒤로 하고 올해로 퇴임하십니다. 늘 인자한 모습과 함께 조용히 묵묵히 때론 강단있게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셨으며, 참으로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 두 해를 넘도록 교육이면 교육, 씨을살림이면 살림을 도 맡았던 권숙향 상담부장이 6월에 상담소를 퇴임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성들에게 늘 즐겁고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실거죠.
- 티끌모아 태산을 만드는 김만복 선생이 12월 연말부터 상담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여성이면서 이주여성들을 책임 질 김만복씨가 웬 상담소! 네, 상담소 북 터졌습니다. 그러나 늘 이주여성과 그 가족에게 온 안테나가 작동되는 선생은 이주여성들 한 명 한 명이 전문분야에서 일하도록 하고 싶다네요. 만복씨 대단해요.

5. 기타

- (주)에너지관리공단이 2011년은 대형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후원에 이어 2012년은 연말에 사무실 전체 형광등을 절전형 형광등으로 교체해주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과 인연은 본 상담소가 여성가족부 우수기관으로 등록(2010년 시설 점검결과)되면서입니다. 이는 우리지역 여성들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주)동양기획은 10월 청석공원에서 개최한 광주시제3회복지박람회날 고영신기자와 만남! 그리고 우리회 회원이 되시면서 씨을여성회 창립10주년 기념에 기념타올 200장을 기꺼이 후원해주셨습니다. 소중한 마음! 어려운곳에 잘 전달하는 씨을여성회가 되겠습니다.

2013년 제 6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100시간)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지원을 위한 전문상담활동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해 활동 할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정 : 9월2일~11월18일(매주 월요일)
- 장소 : 서울 여성회 교육관

월/일	시 간	내용	월/일	내용
9/2	9:00-12:00	한국사회의 성문화와 성폭력	10/14	성적소수자에 대한 이해
	13:00-18:00	여성인권과 여성주의 상담		성폭력피해자 지원의 통합적 접근현황 -one-stop 지원센터 견학
9/9	9:00-12:00	성폭력 개념 및 이해	10/21	성인식 점검하기 - 집단토론 -
	13:00-15:00	집단상담 프로그램		성폭력가해자의 상담적 접근
	15:00-18:00	여성의 몸과 여성문제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
9/16	9:00-12:00	성매매 현황과 실태	10/28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 원리
	13:00-16:00	성폭력 바로보기 -영상물 시청 및 토론		성폭력 피해자 심리치료 과정
	16:00-18:00	성폭력 관련법의 이해		성폭력 피해 상담의 사례 다루기
9/23	9:00-12:00	유형별 성폭력의 이해 (친족 및 아동)	11/4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 캠페인 - 선언문, 피켓만들기/토론
	13:00-16:00	성폭력피해자의 의료적 접근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 캠페인
	16:00-18:00	유형별 성폭력의 이해 (장애인)		역할을 통한 성폭력 피해의 통합적 이해
9/30	9:00-12:00	성폭력 바로보기2 -영상물 시청 및 토론	11/18	성폭력 사례 다루기 - 팀작업 -
	13:00-15:00	성폭력 사건의 법적 절차		성폭력 피해자 상처공감 훈련 및 상담사례 워크숍
	15:00-18:00	유형별 성폭력의 이해 (직장, 데이트)		상담원의 역할과 자세
10/7	9:00-12:00	상담의 원리와 실제		성폭력 상담의 실무실습 -전화·사이버상담 실습 및 슈퍼비전-
	13:00-18:00	상담 실습 및 슈퍼비전		종합평가 및 수료식

* 강의 및 강사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13년 <제2기-13기>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은 아동 및 청소년, 성인대상 성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강사를 양성하고자 한다. 성평등 의식 및 가치관을 확립하고 성평등 문화를 형성하도록 한다.

- 일시 : 제12기(3월~5월, 매주 월), 제13기(9월-11월, 매주 월)
- 장소 : 서울 여성회 교육관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일정	시간	강의내용	일정	강의내용	일정	강의내용
	9:30 ~ 12:00	우리 사회 성문화와 섹슈얼리티 이해		성기구조와 차이 이해		강의안 구성 및 이미지 메이킹 실습
	13:00 ~ 16:00	여성인권과 폭력		임신, 피임, 낙태, 성병		모의강의 및 평가 (아동, 초등저학년, 초 등고학년)
	9:30 ~ 12:00	성의 역사		성충동과 음란물 이해		모의강의 및 평가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
	13:00 ~ 16:00	새롭게 보는 동성애		아동, 청소년 성폭력 실태와 대책		모의강의 및 평가 (직장 내 성희롱, 노인, 장애인)
	9:30 ~ 12:00	대중매체속의 성문화 이해		데이트 성폭력, 스토킹 이해		* 현장 실습 청교육 참관 수업 3회 이상
	13:00 ~ 16:00	대상별 특성과 이해 (아동, 청소년, 노인, 학부모, 장애인)		장애인 성폭력 실태와 대책		
	10:00 ~ 12:00	성폭력 개념과 특성		직장 내 성희롱 실태 대책		
	13:00 ~ 15:00	성폭력피해자, 가해자의 특성 이해		친족 성폭력의 실태, 특성		

2013년 씨을여성회 활동

씨을성회는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소모임, 행사 등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희망이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듭니다.

사무국에서는...

1. 제 11차 정기총회

일시 : 1월 31일(목) 오후3시

2. 이사회(연 4회)

일시 : 4월, 7월, 10월, 2014년 1월

3. 임원들과 자원 활동가와 친교와 문화체험

일정 : 4월

내용 : 회원, 자원활동가와 친교도모

4. 창립 제1주년기념 일일카페 후원행사

일시 : 5월

내용 : 여성인권향상을 위한 기금마련

5. 독서토론모임

일정 : 월 2회

대상 : 성인 누구나

6. 여성주간 행사 일정 : 7월 첫째 주

내용 : 여성의 인권향상과 권리 찾기

7. 제 5회 '회원의 날' 행사

일시 : 11월

참가자 : 회원, 후원자, 자원활동가

내용 : 후원에 감사 초대

8. 정책협의회 및 종무식

일시 : 12월 (1박2일)

참가자 : 이사, 전자문위원, 회원, 활동가

9. 연대 활동

단체 : 경기여성연대, 광주여성연대, 유관단체

내용 :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및 활성화



상담소에서는....

1. 연중 상담(1월~12월)

상담방법 : 전화상담, 면접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찾아가는 상담

일정 : 1월~12월(연중)

지원사업 : 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컴퓨터연
계, 기타 등

2. 교육사업(1월~12월)

1) 집단상담 성(상담)교육

대상 : 초, 중, 고등학생/피해자, 가해자

2) 청소년 순회성교육

대상 : 초, 중 고등학생

3) 성교육 인형극 공연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장
애택소년

4)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 기업체, 관공서, 학교, 군대

5) 학부모, 노인, 성인 등 성교육

3. 전문상담원(강사)양성교육

1) 6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대상 : 초대졸업(예정자)

일정 : 6월~8월 (매주 월)

2) 12기~13기 성교육전문강사 양성교육

대상 : 초대졸업(예정자)

일정 : 3월~11월(매주 월)

4. 전문 활동가 워크샵

1) 성교육강사 연구반

일정 : 2월~12월 (월4회, 수)

대상 : 성교육전문강사

2) 상담원 수퍼비전

일정 : 3월~11월 (월1회, 월)

대상 : 전문상담원

3) 성교육 인형극반

일정 : 2월~12월(월4회, 화)

대상 : 성교육 인형극 전문단원

5. 홍보활동

1) 홍보물 배포(소식지, 안내장, 홍보물 등)/연중

2) 매체활용 : 홈페이지, 생활정보지, 지역신문,
언론매체 등/연중

3) 캠페인 활동

일정 : 1월~12월(직접-월2회/기타-수시)

내용 : 성폭력예방, 성평등한 지역문화 확산(부
스)거리캠페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는...

1. 한국어 교실

대상 : 이주여성

일시 : 1월-12월

방법 : 한국어 수준별(단계별)

2. 취업 교육

전문성을 가진 직업 선택을 위한 모색과 연구,
실천 / 사회적 기업 등

3. 특별 교육

글쓰기반 - 귀화교육 - 토픽반

4. 문화 이해 교육

- 국적별 모임

5.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행복한 가정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
- 부모모임(격월), 시부모교육(분기별), 자녀
(지속)교육(부모모임시 병행) 등

6. 상담 활동 활성화

- 예방상담 : 늘어나는 해체가정을 예방하도록
통역을 통한 상담

- 취업문제, 가족관계 문제, 체류 문제, 친정나
들이 문제, 임신 출산문제, 가정폭력, 이혼관
계 등

- 자조모임

7.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 광주이주민협의회 등을 통한 네트워크 활동

- 광주여성연대, 경기여성연대 등의 활동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자원 활동가 (인증센터로 자원 활동시간 증명 해드립니다.)

상담활동 : 전화 및 면접 상담 활동

사무활동 : 자료수집과 우편물 발송, 사무지원, 홍보 활동 등

기타활동 : 강의, 법률, 의료지원활동 등

회원(CMS) 가입

회원(CMS) 가입으로 회비를 내시면 씨알여성회 정회원이 될 수 있으며, 씨알여성회에서 진행되는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의 10% 할인 혜택과 씨알여성회 정기 간행물을 보내드립니다. 납부하신 후원금액은 연말 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회원(CMS) 가입, 재정후원, 물품후원, 상담활동, 교육활동, 사무활동, 기타 등

후원계좌

씨알여성회 : <농협> 221012-51-026543 (예금주: 씨알여성회)

상 담 소 : <농협> 221012-51-026577 (예금주: 씨알여성회)

광주결혼이민자지원센터 : <농협> 221012-55-001893

(예금주: 씨알여성회 결혼이민자)



2012년 후원에 주신분들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과 따뜻한 격려 그리고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후원금 후원자

강미정, 강순원, 강지혜, 강천심, 강희숙, 고미란, 곽분이, 곽현근, 곽혜영, 관주영, 구본숙, 권숙향, 권현정, 기독교의사회, 김광휘, 김만복, 김말순, 김문자, 김미향, 김상규, 김선광, 김수영, 김신성, 김영숙, 김영자, 김요한, 김은아, 김을미, 김종숙, 김지영, 김진, 김진성, 김철용, 김태규, 김태식, 김후남, 나정화, 남재호, 동서울교회, 류복연, 리에우, 마이짱, 모숙영, 문대골, 민말순, 바기, 박경애, 박시내, 박연준, 박영자, 박용래, 박윤희, 박현숙, 배기명, 배숙희, 배현덕, 배현주, 복지교회, 부티반, 분당남부교회, 빛번, 서평일, 서문장로교회, 성명옥, 성미경, 성주현, 소망교회, 소병훈, 소용주, 송연옥, 송정교회, 송주현, 신당4여전도회, 신당중앙4여전도회, 신당중앙교회, 신동현, 심준영, 양경애, 양소운, 양해경, 여성가족과, 예심교회, 예지교회, 오금자, 오마제, 유병순, 유순이, 유옥란, 원금자, 윤석남, 윤영애, 윤정환, 윤종설, 윤혜경, 이경자, 이명원, 이미경, 이미정, 이상호, 이선범, 이승학, 이지윤, 이주민선교회, 이형숙, 이충희, 이해학, 이화선, 임복희, 이해영, 이현성, 장윤경, 정도향, 정정자, 조의숙, 조준호, 조형자, 즈엉, 지엠, 지희순, 차명령, 채석연, 천덕희, 청운3여전도, 채규성, 최경숙, 최혜자, 최중례, 최창곤, 최천경, 탁혜경, 태원세무법인, 투용, 한강환, 한경민, 한상윤, 한솔링크, 한영애, 한이임, 황선라

♥ 물품 후원자

* 단체 : 광주시푸드뱅크(고기5박스, 무화과4박스, 양념1박스, 마스크외1봉지, 과자8박스, 커피14박스, 컵3박스, 냉면6박스, 떡볶이1봉지, 콩나물5박스, 소스3박스, 만두7박스약1상자, 신발4켤레, 김1박스, 마른김2박스, 음료수46박스, 치즈6박스, 토마토1박스, 토마야7박스, 어묵3박스, 초코렛9박스, 햄4박스, 빵41박스)광주시여성가족과(물티슈2, 볼펜5박스)건강강정지원센터(빵1상자, 화분1개)(주)동양기획(타올200개, 옷, 신발)대한적십자사(빵63개, 쌀1봉지, 김치2봉지, 김1박스)모두회(보온병60개, 떡국100그릇)매일분유(머리끈28개)복지교회(의류및신발8박스)세상의빛선교교회(차3박스)10기성교육강사교육생(아이스크림6개)송정농협(음료수1박스)엘림선교회(시루떡30봉지)예소리(숙주나물2박스)주영교회(과일 3박스)청운교회(빵1박스)한솔링크(목욕용품1박스)

* 개인 : 김광휘(참기름셋트5박스)양경애(계란1판)강미정(상추1봉지)관주영(베트남커피1봉지)곽혜영(비타5001박스)권숙향(옷2봉지)김기동(음료수1박스, 갑1봉지)김민서(김치1통, 선풍기1대)김수영(옷1가방)김을미(복숭아1박스, 빵1개)김지영(음료수2박스, 굴1봉지)김천길(음료수1박스)김혜란(참외10개)노라(빵1봉지)림패(음료수1박스)막티히에(베트남커피1봉지, 참깨1봉지)민영미(굴1박스, 포도1박스)무명(옷1가방)박경애(계란3판, 포크4개, 라면5개, 옥수수20개, 수박1통, 사탕1봉지, 구급용품케이스1, 공책5권, 크레파스10개, 상추1봉지, 책95권, 한글교재14박스, 공1개, 장난감4개, 화분10개)바기(음료수3박스)박시내(딸기2봉지, 말린과일3봉지, 음료수1박스)박인혜(커피1박스, 과자1박스)박정자(복숭아1박스)보김록(계란10개)배기명(딸기2봉지)배숙희(의류, 카페트, 베게1박스)부티반(수박1통)송윤빈(음료수1박스)성명옥(키위1봉지)성미경(A4용지8박스)성주현(두유1박스)신동현(상추1박스)아멜리아(음료수1박스)안태완(화분1개)양경애(계란10개)오마제(신발15개, 옷12봉지, 가방17개, 오징어1마리, 의자2개, 탁상4개)오정희(미숫가루1봉지, 우유2개, 썬차1통, 인형4개)양희경(과자1봉지, 옷, 가방1봉지)

오금자(옷1박스)오혜란(의류3봉지)유옥란(떡10팩)윤영애(음료수1박스, 초코렛, 빵1봉지, 옷2가방, 케익1개, 식사8인분), 결혼이민자(음료수2병)이경자(책42권, 옷3벌, 옷3가방)이봉숙(옷1박스)이선의(식사3인분, 수박1통, 음료수1박스, 굴1박스)이지영(음료수1박스)이정자(바나나1봉지, 음료수1박스)이예순(박카스2박스)이홍핑(굴1박스)이창은(음료수1박스)성미경(A4용지10묶음)지엠(돌자반김1박스, 베트남커피1포, 음료수1박스)진주(참외1봉지)전숙경(음료수1박스)정도향(음료수2병)정은자(아이스크림15개)조셋(오렌지1봉지)조혜림(가방1)조형자(떡5팩)즈영(수박1통, 음료수1박스)쭈(약과1봉지)차은경(음료수2박스)최규성(음료수1박스)최효원(음료수1박스)왕링링(옷1봉지)왕짱(미숫가루10개)한경민(홍보테이블, 파라솔1세트)홍성덕(커피2개, 과자1개)홍예진(음료수2박스, 커피2박스)행복한우리집그룹홈(의류13가방, 신발3가방)현대아파트주민(아기옷1봉지)헤미(옷, 신발1봉지)탁티탄(삼육두유1박스)탕한메이(백일떡1봉지, 상추, 호박1봉지, 아이스크림10개)투용(종합선물세트1박스)투엿마이(포도1박스)티탄(포도1봉지)평강호스피스(화분1개)프엿타오(쥬스2병, 포도2송이)

♥ 자원봉사자

강경난, 강서윤, 강승원, 강민영, 강승묵, 강윤수, 강은진, 강정대, 강준혁, 강진형, 강해량, 강해울, 고하은, 공민지, 광지영, 광진우, 광태호, 광혜정, 구민주, 구지웅, 구해찬, 권도익, 김건우, 김건호, 김경민, 김기완, 김나린, 김나영, 김다솔, 김다현, 김도겸, 김도연, 김동권, 김명윤, 김민기, 김민영, 김민준, 김민하, 김민희, 김범성, 김범수, 김산, 김상우, 김서현, 김성민, 김성주, 김성훈, 김송희, 김시은, 김아랑, 김어진, 김연희, 김영록, 김영민, 김영채, 김영택, 김예동, 김예린, 김예원, 김예진, 김요셉, 김용민, 김우림, 김은비, 김은빈, 김은선, 김은애, 김은지, 김이슬, 김재련, 김재준, 김재한, 김정은, 김종겸, 김주엽, 김주희, 김준희, 김지민, 김지연, 김지연, 김지우, 김지은, 김진선, 김진하, 김찬영, 김초연, 김태양, 김하린, 김향민, 김현우, 김혜빈, 김혜원, 김효직, 나혜수, 나희연, 남성현, 노시찬, 라정민, 류상민, 문수련, 문희진, 민필기, 박결, 박경애, 박경원, 박경화, 박광호, 박다인, 박민영, 박범수, 박보희, 박상세, 박세린, 박세연, 박세윤, 박소은, 박소현, 박수림, 박수빈, 박수아, 박오성, 박연우, 박용, 박유림, 박은영, 박이도, 박정원, 박정태, 박주미, 박지우, 박지은, 박진섭, 박진우, 박재영, 박현민, 박혜빈, 박혜원, 박희진, 배은지, 백민수, 백은정, 백인범, 서민호, 서성원, 서영익, 서예영, 서주영, 서지은, 석영진, 석현우, 성재원, 손경환, 손하울, 송승우, 송진우, 송진욱, 신대근, 신현지, 신혜정, 심다희, 심명보, 심영임, 아하란, 안도현, 안민수, 안민지, 안상수, 안성수, 안소영, 안수민, 안시환, 안신영, 안유정, 안재현, 안진영, 안해규, 안해원, 안혜연, 안홍진, 양수빈, 양태환, 양희연, 엄국현, 엄세나, 엄세빈, 여정, 오마제, 오동환, 오시연, 왕현아, 우인경, 원유찬, 원종빈, 유경선, 유민욱, 유민지, 유현수, 윤민우, 윤병욱, 윤병철, 윤자현, 윤정현, 윤종민, 윤희빈, 윤희주, 이경환, 이고호, 이국빈, 이규동, 이나현, 이동건, 이동훈, 이문기, 이민아, 이보영, 이상건, 이세빈, 이소민, 이소희, 이승연, 이승혁, 이연경, 이영민, 이예원, 이우진, 이우찬, 이원우, 이윤서, 이은비, 이재희, 이정식, 이주희, 이준엽, 이지성, 이지현, 이찬위, 이찬희, 이태중, 이하임, 이한범, 이현우, 이혜령, 이혜원, 이효경, 이희강, 임건희, 임나윤, 임수민, 임예인, 임종빈, 임창성, 임태산, 장다빈, 장세윤, 장아영, 장유림, 장유빈, 장유자, 장하나, 장현윤, 전가은, 전도울, 전보연, 전상진, 전진환, 전현재, 정난슬, 정다운, 정미연, 정보경, 정소영, 정소현, 정송림, 정승훈, 정운성, 정은남, 정중우, 정지연, 정진우, 정채연, 정현주, 정현지, 정해민, 정희서, 정희수, 조성진, 조연정, 조영빈, 조종선, 조종현, 조지영, 조태국, 조현웅, 조혜정, 조희연, 주성혁, 주예찬, 지미경, 진선아, 진향아, 진호제, 차재영, 차홍경, 천승훈, 최고은, 최기환, 최다영, 최동석, 최동원, 최병형, 최성호, 최세진, 최예지, 최윤관, 최은영, 최은지, 최은혜, 최재성, 최주혜, 최지나, 최지연, 최한규, 최한빈, 최현수, 한강산, 한경빈, 한동훈, 한상구, 한상우, 한승훈, 한아영, 한여진, 한유경, 한윤주, 한인섭, 함병민, 함소연, 함현아, 허민석, 허민성, 허수범, 홍기완, 홍유나, 홍인기, 홍정현, 홍진경, 홍현기, 황민희, 황수진, 황욱진, 황유빈, 황지현, 황형민, 황환룡

씨을여성회에서 하는 일

씨을은 생명의 기본원리로 스스로 자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초월합니다. 씨을사상은 인간의 자주성을 짓밟는 모든 폭력에 저항하는 것으로 씨을여성회는 이러한 씨을사상을 이어받아 가부장제 사회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과 함께 합니다.

상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와 관련된 전화, 면접상담 및 연계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집단 상담 및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진행
교육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및 재교육 - 성교육전문강사 양성교육 및 워크샵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학부모 성교육, 노인 성교육 - 여성의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을 위한 의식교육 - 한글교육 양성평등교육 한국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 - 부부교육, 자녀양육교육
소그룹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사례 워크샵 모임 - 성교육 전문강사 연구반 - 독서 토론반 모임 - 성교육 인형극 반 모임
연대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여성연대 활동 - 경기 여성연대 활동 -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활동 - 여성단체, 시민 단체들과의 교류 및 연대 활동 - 인권단체 및 외국인 노동자 센터들과 연대활동
여성 인권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 인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여론화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활동 - 여성정치 참여 및 의정 방청 활동 - 취업알선 및 연계
문화, 홍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을여성회 회보 발간(연2회) - 씨을여성회 홍보물 제작 - 결혼이민자를 위한 소식지 발행

| 부설기관 |

<p>성폭력 상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피해자 상담, 치료프로그램 및 법률, 의료적 지원, 쉼터연계 및 수사동행(경찰서, 검찰청, 병원, 법원 등) - 성범죄 청소년 교정 상담치료교육 - 성폭력예방교육과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 성교육 인형극 전문강사 양성교육 - 성폭력예방과 성평등확산 홍보 및 캠페인 활동
<p>광주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상담, 가족상담, 치료프로그램 및 법률, 의료지원, 쉼터연계 및 동행(경찰서, 검찰청, 병원, 법원, 출입국 사무소 등) - 한국어교육, 한국전통문화교육 및 체험, 외국문화이해교육 - 가족교육, 부부교육, 자녀양육교육, 가족캠프 등 - 국적별 모임, 자조모임



씨올여성회 회원(CMS)가입신청서

씨올여성회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고통 받는 여성을 보호, 예방, 치유하고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 201 -

후원자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H · P	
이 메 일			
자동이체	예 금 주		
	은 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월 1만원	<input type="checkbox"/> 월 2만원	<input type="checkbox"/> 월3만원
	<input type="checkbox"/> 월 5만원	<input type="checkbox"/> 월10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출 금 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상기 본인은 씨올여성회의 회원(CMS) 가입에 동의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인)

※ 회원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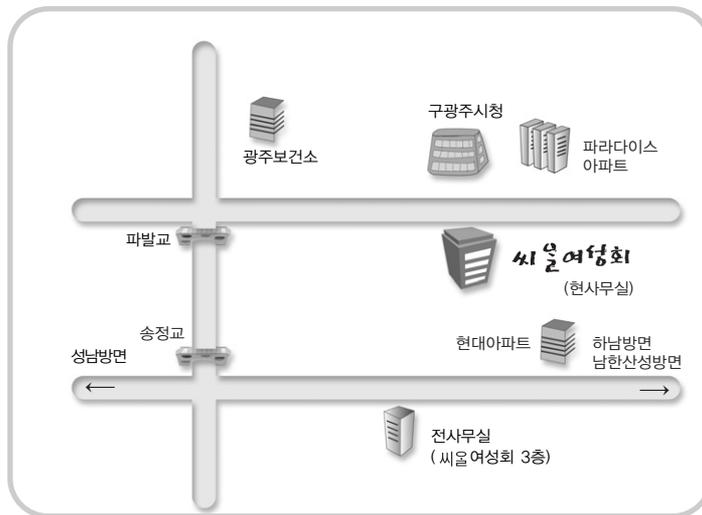
1. 교육수강비 10% 할인이 됩니다.
2. 특강, 워크샵, 보수교육 등에 무료 또는 실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자료집, 소식지등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 기부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MS 자동이체는 은행에 가시는 번거로움이 없이 지정한 날짜에 약정하신 금액이 자동이체 되는 안전한 후원방법입니다.

사단법인 씨올여성회 이사장 김 광 휘
소 장 류 복 연
센터장 정 인 숙



씨얼여성회 찾아오시는 길



- ▣ 대중교통 이용 : 강변역(1113-1) '파라다이스 아파트' 앞 하차 (50분 소요)
- 교대역(500-5) '파라다이스 아파트' 앞 하차 (50분 소요)
- 모란역(3-1) '파라다이스 아파트' 앞 하차 (30분 소요)